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10.16.(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이경희, 김광석,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위원 8인(최은수, 전계순 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구종상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10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구종상 위원장

- 25년 9월 18일(목) 뉴스워치, '美 의회 조사국, 한국인 구금사태 한미관계 악영향'

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후속 반응을 미국 의회 보고서 시점에서 다루면서 사건의 외교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단순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으며 한·미 관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조망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현지 기관과 인물의 직접 발언을 포함시켜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을 하였고 경제·안보 이슈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사건을 한·미관계 전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CRS 보고서 중심의 외신 인용 뿐만 아니라, '왜 한국인들이 구금됐는가', '현재 재판 단계나 외교 교섭 현황은 어떠한가' 등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했으면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구금 사태로 인해 한국 정부의 대응(외교적 항의, 대책 마련 등)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함께 다뤘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실질적 판단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보도 말미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미국 측 시각 위주로 정리된 인상이 있어, 한국 외교 및 산업계 입장도 병행 소개하면 균형감이 더욱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 사건 인물 관계도, CRS보고서 요약 그래픽 등을 활용했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더욱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단순한 외신 전달을 넘어, 외교·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국제 뉴스였습니다. 다만, 사건 배경과 국내 대응, 양국 간 감정의 실제 온도 차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파급력과 여론의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구성이 추가된다면, 시청자가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5년 9월 28일(일) 와이드0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오늘 네트워크 장비 복구'

화재 진화 직후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 점은 공적 책임이 있는 보도로서 시의성이 높고 신뢰감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정부의 복구 단계, 국민 안전, 경제 관련 시스템 우선복구 등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책 대응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정부 24, 우체국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단순 시스템 장애가 아닌 국민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쉽게 설명했으며, 시각적 묘사와 구체적

수치를 통해 현장성을 강화한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산망 화재는 단순한 설비 문제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 보안 및 백업체계 전반의 취약성과 연관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점검 또는 전문가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복구만큼 중요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정부 또는 관련기관 관계자의 언급을 덧붙이면 보도의 심층성이 향상될 것이며,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이 멈췄다"는 수치만 제시하기보다, 왜 단일 시설 화재가 광범위한 행정 기능 중단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주는 설명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보도는 국가 주요 정보 인프라의 위기상황을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공공안전과 디지털 행정 신뢰'라는 주제의 중요성을 잘 환기한 리포트입니다. 다만, 정부 중심의 복구 소식에 머물러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재발 방지 및 생활 현장의 체감 불편을 함께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를 함께 짚었다면 더욱 공적 책임성과 완성도 높은 재난 리포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미 의회 조사국의 리포트 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미나 경과 같은 걸 좀 다뤄줬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런 지적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사안이 마무리된 다음에 미 의회 조사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짚막하게 인용하는 단신 기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명을 한 리포트 제작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기사에 관해서는 여러 번 나간 것 중에 전국부인 지방에서 사건현장에 나가서 사안이 터진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경과를 전달하는 여러 기사 중에 한 건이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최은수 부위원장(서면 제출)

- [우리아이 뽀테스트] 기획 돋보이고 QR코드로 사진 전송 참신
시청자 참여 코너로 마련된 [우리 아이 뽀테스트] 기획 돋보이고 QR코드로 우리아이 사진자랑 참여방법까지 참신하지만, QR코드와 아래 내용을 접속해본 결과 "이 파일 요청은 종료 또는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고 나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합뉴스TV 해시태그 키워드] 온라인상에서 전혀 인식되지 않아
모든 언론사가 #(해시태그)를 통해 뉴스의 키워드를 클릭하면 유사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고 연합뉴스TV도 모든 뉴스에 해시태그가 달려 있음.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연합뉴스TV의 뉴스 하단에 있는 해시태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클릭해도 키워드 관련 뉴스로 이동하지 않고 있음.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EU 철강 쿼터 축소 우려... 380만t 무관세 수출 '흔들', 이 기사에는 #관세 #철강 #유럽, 3개의 해시태그가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의 사진과 영상을 받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됐습니다. 연휴 이후 저장공간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TV의 해시태그는 기존에는 텍스트에만 그쳐서 기능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연결되는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 후에 타사와 같이 유사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해시태그 값이 적용되어 기능 적용 중이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뉴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뉴스잇 구하림인터뷰 중 리정인터뷰 내용 (9월 27일). 영상길이는 15분 34초.
인터뷰 대상이 된 리정은 글로벌 스타댄서이자 K팝 대외 안무가이자 블랙핑크, 에스파 등 우리나라 대표 걸그룹 안무를 담당한 인물임. 유명안무가로 인정받아 세계무대에 진출한 성공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케더헌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제작 3년전부터 초안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성공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사회자는 리정안무가의 성공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질문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부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 답답함을 가졌습니다. 답답함은 아마도 청소년보호와 학부모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뷰내용으로부터 해답을 얻고자 했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요즘 목표 없이 아이돌 환상에 젖어 사는 10대와 진로와 취업을 걱정하는 20대들에게 이 인터뷰 내용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질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토록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지, 세계무대 진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노력과 끈기, 가정의 역할,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의 질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K-컬처 문화에 동참하려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등등. 추후 인터뷰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다루어주시길 기대합니다.
- 씬속뉴스(9월 29일). 운전석에 아이 태우고(1분 07초) 영상을 보면 유아 유투버가 아이를 운전석앞에 앉혀 놓은 채 시내 운전하는 장면 4컷입니다. 심지어 아이얼굴이 오픈카 위로 내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제보자는 라이브영상을 제공하였고 누리꾼들이 위험성을 지적하였으나 유아유투버 운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운전한 후 차를 세웠다고 한 내용입니다. 과거 유아유투버들이 유튜브 영상 제작에 자신의 5살 짜리아이를 동원하여 문제가 된 보람튜브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유투버는 자신의 아이를 이용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아동의 수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영상으로 모시민사회단체로부터 아동학대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출연 영상물에 보호자 안전수칙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연구사업, 2020)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위험천만한 1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제보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과 같은 추후조치 적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우연히 타방송사(MBN) 뉴스파이터에서 이 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39조 위반, 영유아 안전 금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언급과, 사회자의 '한번 실수는 용서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지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 제안합니다. 이런 행위는 한번만 해도 걸린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CCTV와 블랙박스가 있어서 제보자만 있다면 처벌(면대면 주의, 및 추가행위시 구속등의 방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절차는 아동안전의식 조성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저희가 구하림의 '뉴스잇' 인터뷰 섭외를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 정치인들을 출연하는 그런 코너가 아니라 핫한 인물들이 출연하고 시청자를 대신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저희가 인터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이 많은 케데헌 안무가를 섭외하는데 성공하여 한 15분 가량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인터뷰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을 섭외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틀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섭외는 잘 됐고 질문도 나름 짜임새 있게 됐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더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질문에 들어갔으면 인터뷰가 더 알차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썬속뉴스' 아이가 왜 운전석에 있느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하나 입수해서 그 영상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가볍게 터치하는 쇼츠 포맷의 유튜브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받은 영상을 짧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다양한 리포트에서나 다루는 이런 저런 문제를 다 건드릴 수는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가 나간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파악은 못했지만 강한 댓글 경고 같은 게 엄청나더라고요. 꼭 저희가 직접 경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댓글만 봐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석 위원

- [현장잇슈]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줄이려면 어떻게?...1세대 카레이서 '꿀팁' 받아보니
지난달 22일 전남도의회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장착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하였는데, 건의안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장착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3%(720명)에서 2024년 30.2%(761명)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거나, 개인 사정상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습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안전교육을 받으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연합뉴스tv가 지속적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교육 방송 또는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도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읽기] 결국 백기 든 카카오...친구택 원상복구

약 20분간 경제관련 뉴스를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대담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의 관심사를 언급하면서 정치측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측면에서 자세히 언급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한강벨트 20만호 건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시청자들의 관심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내용으로 일반 뉴스리포트와 다른 포맷으로 경제평론가의 의견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

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외부 경제평론가를 초대하여 방송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가능하시면 경제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자사(自社) 경제부 기자도 틈틈이 출연하여 연합뉴스TV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감소 관련 저희 콘텐츠는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같이 차도 타면서 어떻게 해야지 안전사고 감소를 할수 있는지 직접 해보는 그런 현장형 콘텐츠였습니다. 고령 운전이 여러 가지 위험하긴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정비나 또는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콘텐츠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런 류의 콘텐츠들을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만들어 경각심을 갖게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콘텐츠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읽기' 코너는 일반적으로 경제평론가들이 출연해서 한 20분 정도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저희 기자들도 가끔씩 동석을 해서 출연하기도 합니다. 사안이 큰 경우 기자들이 같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자가 별도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는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 기자들이 출연하는 코너들도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출연을 더 많이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희 채널 및 콘텐츠가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전계순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전계순 위원(서면 제출)

- 롯데카드 대표 "재발급 100만명 밀려...주말까지 해소될 것"

롯데카드 대표는 지난 9월 24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카드 재발급이 100만명까지 밀려있는 상황으로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날 오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금융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는 카드 재발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가동해서 재발급할 수 있는 캐파(Capa)가 6만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보안패치 누락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해 297만명, 약 200GB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바 있으며 이 중 28만명은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까지 유출이 되었습니다. 롯데카드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인 ISMS-P 인증을 받고도 사고가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인증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 내부의 정보보호 관리실태가 부실했다"고 했으며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 중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는 보안 투자를 강화하겠다는면서도 롯데카드 매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MBK파트너스 윤부회장은 "올해도 롯데카드를 매각할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매각을 추진하는데 5년간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금융사 투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롯데카드측의 '내부 관리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도와 현재까지 진행된 소비자 보호 처리 대응, 조치 등 현황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를 연합뉴스TV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IT강국이라는 브랜드가 무색하게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다양한 보안문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등 국가 사이버에도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공공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은 내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향후 전반적인 사이버 안보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최근 국내에서 해킹 등 IT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요구 등의 리포트를 제작했지만 롯데카드를 비롯한 기업과 기관들의 해킹 문제점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일 최고가 경신... '성큼' 다가온 코스피 5천 시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스피 5000시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연합뉴스TV에서도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지난 8월 3일자 '연합뉴스TV스페셜' 387회(코스피 5,000목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려면)에 이은 동 프로그램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성장동력이 부족한 산업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복핵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난 스페셜 387회에 이어 동 프로그램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이익 보장 등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선진국처럼 투자자 중심의 배당과 배당세율 개선 등의 내용들이 잘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복핵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양 프로그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핵리스크는 우리나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코스피 5000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복핵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취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코스피 5000에 대해 추가 취재 시에는 복핵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최근에 코스피 주가지수가 올라서 거의 4천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자금들이 지금 금융시장으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프리즘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낮은 대기업들 지배구조라든지 낮은 배당성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핵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인데 기사에서 이 부분을 짚어주지 않은 것은 고착화된 저희 리스크라고나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된 리스크가 이미 반영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트럼프랑金正은이 서로 핵무기를 놓고 대결과 갈등을 벌일 때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지수가 천 대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증시의 향방을 결정한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기사를 다룰 때는 최근에 우리 증시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다룬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서연 위원

구하림의 '잇터뷰', 안무가 리정 님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시청했습니다. K-POP의 위상이 높아진 현 시대에 적절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케데헌을 준비하며 겪었던 과정과 기획 동참 경위를 진솔하게 알려주었고, 또한 창작자로서의 책임감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댄스를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 그리고 창작의 즐거움에 대한 설명에서 예술에 대한 진지함이 엿보였고 겸손함 속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모습은 현시대 젊은 리더의 바람직한 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뷰 전반에 걸쳐 댄스에 관한 자신만의 철학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어 앵커분도 점점 자리를 잡아 가면서 진행이 익숙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본은 최소한으로만 보시고 진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진행 기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야외에서 취재 활동 하다가 차분하게 스튜디오에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성을 조금 드러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기 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인터뷰이와의 어떤 소통을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질문지를 어느 정도 볼 것인가 근데 질문지를 일부러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내용을 다 외우고 숙지하고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앞에서는 연기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시청자들이 볼 때 자연스럽게 뭔가 임팩트가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터뷰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명희 위원

명절 불청객 층간소음 갈등...분쟁 조정은 유명무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이 한 집에 모이게 되면 자연스레 평소보다 소음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직접 항의하거나 경비실에서 주의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비단 명절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 범죄로 번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3만 건 이상 전화 접수될 정도로 빈번한데 강제력이 없는 분쟁 조정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예를 영화를 비롯하여 실제 보복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갈등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관련 단체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층간소

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개인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회적,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도는 명절을 맞이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 연합뉴스TV에서는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화면에 표기해주어서 고속도로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층간소음은 관련 주제로 영화도 여러 편 본 것 같은데 최근에도 넷플릭스에 층간소음 관련된 영화가 또 한 편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아이템으로 다룬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은 못 해봤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을 개인에게 전가되어서 다들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는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사회적 이슈로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즐기치게 보도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박세진 위원

정동영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 2025-09-25 11:50:13

'남북 두 국가' 정부 내 이견..."사실상 두국가" "인정 안해" 2025-09-25 20:58:14

연합뉴스TV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신속히 보도하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입장과 연계해 정부 내 이견과 논란을 적시적으로 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정 장관의 발언이 갖는 함의와 이로 인한 외교안보 정책 및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북확성기 철거, 접경지역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 중지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이슈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한 심층 해석과 더불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다뤄주시길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통일부장관 발언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는 조금 컬러가 다르다는 느낌도 드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그런 걸 위해서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좋은 기회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태순 위원

9월 25일 라이브투데이 「[단독] CT 촬영 한번에 200만원?... '법 사각지대' 선납진료비

김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는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 문제를 충

실히 담아내며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특히 치과의 고액 선결제와 환불 거부 사례를 구체적인 피해자의 목소리와 함께 전달하면서, 의료 소비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의 입장과 법률 전문가의 분석까지 균형 있게 다루어 시청자들이 사건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돋보입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특수성과 비급여 진료비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 당국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부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관계 당국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연합뉴스TV가 생활 밀착형 이슈를 꾸준히 다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희 언론 입장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정책 관련 기사들은 조금 다루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기사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그런 어려운 이슈들을 생활 밀착형으로 잘 바꾸고 어프로치해서 쓴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독보도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